

도서(島嶼)에서 본 뱀 설화 비교고찰*

- 오키나와와 제주의 뱀 설화를 중심으로 -

이예안**
hinolee@jejunu.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 제주 뱀 설화 유형 분류 및 분석 |
| 2. 오키나와 뱀 설화 유형 분류 및 분석 | 3.1 뱀과 집안 |
| 2.1 뱀과 마쓰리 | 3.2 뱀과 당 |
| 2.2 뱀과 우타키 | 3.3 뱀과 인간의 대결 |
| 2.3 뱀과 인간의 혼인 | 3.4 인간이 뱀으로 환생 |
| 2.4 뱀과 인간의 대결 | 4. 나가며 |

主題語: 뱀(snake), 신성성(divinity), 퇴치(repellency), 혼인(marriage), 우타키(Utaki), 당(Dang (a Korean word for a shrine))

1. 들어가며

오키나와와 제주는 민속 문화가 풍부한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민속종교의 영역에서 본토와는 이질적인 민속 문화가 전승되고 있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오키나와와 제주 지역의 민속종교 중에서 본토와의 이질적인 문화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뱀 신앙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두 지역은 역사적으로 이른 시기부터 교류(표류) 왕래가 활발하였으며, 습관 및 민간신앙 등 여러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두 지역의 문화의 친근성은 두 지역의 기층문화 즉 뱀 신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두 지역 모두 뱀신은 인간에게 경외와 숭배의 대상이 되고, 인간에게 복을 주는 주체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타나는 뱀신은 인간에게 부귀와 안녕을 보장해주는 존재로서 인간보다 우위에 있었다. 하지만 우월적 위치에 있던 뱀신의 모습은 점차로 인간에게 퇴치당하는 존재로 변모하게 된다. 오키나와와 제주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제주대학교 장기파견연수(자비) 연구결과 보고서임.

**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일과 부교수

지역의 뱀에 대한 관념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두 지역의 뱀신 설화의 윤곽은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본고에서는 두 지역의 뱀 설화의 영향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두 지역의 뱀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식변화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뱀 설화는 인간이 뱀을 인식하는 다양한 양상을 형상화한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본토와의 뱀 설화에 대한 비교연구는 있었으나, 오키나와와 제주도 뱀 설화 비교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¹⁾. 여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필자는 두 지역의 뱀 설화를 인간과 뱀의 관련에 초점을 두고 분류해 본 결과 네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2. 오키나와 뱀 설화 유형 분류 및 분석

본고에서는 오키나와 뱀 설화에 나타난 당시 사람들의 의식이나 관념을 고찰하기 위해 뱀 설화를 뱀과 마쓰리, 뱀과 우타키, 뱀과 인간의 혼인, 뱀과 인간과의 대결로 유형을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뱀과 마쓰리에는 뱀신을 위한 의례가 인간의 마쓰리로 변용된 설화를, 뱀과 우타키에는 우타키의 신이 뱀신인 설화를, 뱀과 인간의 혼인에는 인간과 뱀이 혼인하여 인간이 태어나는 설화를, 뱀과 인간과의 대결에는 인간이 뱀을 퇴치하는 설화를 기재한다.

우선 오키나와 뱀 설화를 네 유형으로 나누어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사례	설화 제목	출 처	지역 명
뱀과 마쓰리	1	마탄코의 유래 [マータンコーの始まり]	『오키나와의 옛날이야기 (沖縄の昔話)』p.30	나카가미군(中頭郡) 가쓰렌스켄(勝連村津堅)
	2	독사(毒蛇)는 신(神)의 사자 (使者)[ハブは蛇の使い]	『기타나카구수쿠의 전설 (北中城の伝説)』pp.249-250	기타나카구수쿠촌(北中 城村) 오기도(荻道)
	3	달에 있는 아카리야자가마 이야기[月のアカリヤザガ マの話]	『달과 불사(月と不死)』 pp.11-13	미야코섬(宮古島)

1) 岸本孝根(2005)「韓·日 뱀 說話 比較 研究-濟州道와 오키나와 地域을 中心으로」韓南大學校 大學院碩士學位論文

뱀과 마쓰리	4	뱀과 와카미주[蛇と若水]	『오키나와의 옛날이야기 (沖縄の昔話)』p.170	히라라(平良)
	5	뱀 데릴사위-바늘 실형[蛇 簪入り一針糸型]	『일본옛날이야기통관(日 本昔話通観)』p.66	나카가미군(中頭郡) 요미탄촌(読谷村)
	6	뱀데릴사위[蛇簪入](1)	『오키나와의 옛날이야기 (沖縄の昔話)』pp.171-172	미야코지마(宮古島) 히라라(平良)
뱀과 우타키	7	미야코지마 하리미즈 우타 키의 유래-대사 신혼 전설 [宮古島漲水嶽由来のこ と一大蛇神婚伝説]	『이로세쓰텐(遺老説傳)』 pp.123-126	미야코지마(宮古島)의 다이라스미야(平良偶屋)
	8	뱀데릴사위[蛇簪入](2)	『오키나와의 옛날이야기 (沖縄の昔話)』pp.172-173	미야코지마(宮古島)
뱀과 인간의 혼인	9	뱀 데릴사위-행복한결혼형 [蛇簪入り一幸福な婚姻型]	『일본옛날이야기통관 (日本昔話通観)』pp.79-80	미야코군(宮古郡)
	10	뱀 데릴사위-알 탄생형 [蛇簪入り一卵生子型]	『일본옛날이야기통관 (日本昔話通観)』pp.80-81	나카가미군(中頭郡) 요미탄촌(読谷村)
	11	뱀 부인[蛇女房]	『일본옛날이야기통관 (日本昔話通観)』p.626	나카가미군(中頭郡) 요미탄촌(読谷村)
뱀과 인간의 대결	12	대사 구치후라차퇴치 [大蛇クチフラチャー退治]	『오키나와의 옛날이야기 (沖縄の昔話)』pp.31-32	온나촌(恩納村)과 긴(金武)
	13	야라무루치의 인신공양 [屋良漏池の人身御供]	『오키나와의 옛날이야기 (沖縄の昔話)』pp.33-35	나카가미군(中頭郡)가데 나쵸야라(嘉手納町屋良)
	14		『기노자손사(宜野座村史)』 第2卷	기노자손(宜野座村)의 소게이(惣慶)부락
	15		『기노자손사(宜野座村史)』 第2卷	기노자손(宜野座村)의 松田부락
	16		『긴구지-전전편상(金武區 誌-戦前編上)』	긴(金武)
	17	뱀데릴사위-할머니 옷을 입은 모습[蛇簪入り一姥皮型]	『일본옛날이야기통관 (日本昔話通観)』pp.75-79	나하시(那覇市)

2.1 뱀과 마쓰리

오키나와 뱀 설화 중에 뱀과 마쓰리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여섯 편이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마탄코의 유래

옛날에 마탄코의 날이 되면 바다에서 머리가 일곱 개인 뱀이 온다. 이 섬에는 여섯 명의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뱀이 다섯 명의 아이를 먹어서 한 명만 남았다. 거기에 신처럼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 일곱 개의 큰 항아리에 술을 넣어두라고 했다. 그 뱀이 와서 일곱 개의 항아리의 술을 전부 마시고 취해서 쓰러져 있는 것을 죽였다. 그 때부터 마탄코(해변에 일곱 개의 큰 항아리를 모시는 행사로, 지금은 행해지지 않는다)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사례 2> 독사(毒蛇)는 신(神)의 사자(使者)

서낭당에 갔을 때 기도를 드리지 않거나 오키나와 6월 축제 때 참석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5월 축제 때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하면 뱀에 물렸다고 한다.

<사례 3> 달에 있는 아카리아자가마 이야기

세쓰마쓰리(節祭) 전날 밤 신의 사자인 남자가 두 개의 통을 짊어지고 지상에 내려왔다. 하나의 통에는 스데미즈(スデイ水), 다른 통에는 시데미즈(死水)가 들어 있었다. 몇 대가 바뀌어도 소생할 수 있는 스데미즈를 인간에게 끼얹는 일이 이 남자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였다. 그런데 여행의 피로로 남자가 쉬고 있는 사이에 대사(大蛇)가 스데미즈를 들어 끼얹어버려 결국 인간은 시데미즈를 끼얹게 되었다. 스데미즈를 끼얹은 뱀은 탈피를 함으로써 재생을 반복하는 존재가 된다. 천상으로 돌아간 남자는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벌로 통을 짊어지고 달 속에 영원히 서 있도록 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실패한 인간을 가엾게 여긴 신은 다소의 젊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쓰마쓰리 전날 밤 천상에서 와카미즈(若水)를 보내게 되었다. 그래서 세쓰마쓰리 날 이른 아침에 우물에서 와카미즈를 길어와 가족이 끼얹는 습속이 시작되었다 한다.

<사례 4> 뱀과 와카미즈

옛날에 인간이 뱀처럼 허물을 벗고 젊어지는 세상에 같이 살았다고 한다. 다이라(平良)의 무주카천(六日川)에서 ‘세쓰마쓰리 날에 인간이 이기면 인간은 죽지 않고 이 세상에 그대로 살고 뱀이 이기면 뱀은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서 언제까지나 죽지 않게 되는’ 내기를 했다. 인간이 세쓰마쓰리 날에 무주카천에 가보니 뱀이 먼저 와서 물을 뒤집어쓰고 있어서 인간이 뱀에게 지고 말았다. 뱀에게 진 인간은 죽게 되었고 뱀은 허물을 벗고 죽지 않게 되었다.

<사례 5> 뱀데릴사위-바늘 실형

아카마타가 남자로 변신해서 미녀 집을 찾아오는 것을 부모가 알고 다시 찾아오면 바늘에 실을 꿰어 옷에 찌르라고 한다. 딸은 부모의 지시대로 했고 다음날 그 실을 따라가 보니 실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딸은 임신한 상태라서 예로부터 전해지는 말대로 해변에 가서 하얀 모래를 밟았더니 아카마타의 새끼들이 많이 나왔고 딸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것이 해변 놀이의 시작이라고 한다.

<사례 6> 뱀 데릴사위(1)

멋진 남자가 매일 밤 찾아와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웃 할머니가 바늘에 실을 꿰어 그 남자가 찾아오면 꿰으라고 해서 그대로 했다. 다음 날 따라가 보니 쓰카사야라는 우타키 돌 안에 있었다. 실을 당겨보니 뱀이었다. 그 바늘이 뱀의 눈에 꽂혀 쓰카사야 신은 한쪽 눈이 없다고 한다. “3월 3일에 쭉을 넣은 후치모치를 만들어 바다에 가서 먹어라”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 뱀 새끼가 태어났다.

<사례 1>에서 마탄코의 날에 제물로 뱀에게 아이를 바치는 의례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마탄코의 날에 인간이 뱀을 퇴치한 후에 해변에 일곱 개의 큰 항아리를 모시는 행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뱀을 퇴치한 신처럼 훌륭한 사람에 대한 의례가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의례의 대상이 뱀에서 인간으로 변용되는 과정을 담은 설화이다.

<사례 2> 오키나와 6월 축제와 5월 축제가 뱀과 관련이 있는 축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례 3>은 1926년에 미야코(宮古)를 방문한 네후스키(ネフスキー)가 채록한 신화이다. 이 이야기를 아카미네마사노부(赤峰正信)씨²⁾는

이 신화에서 말하는 세쓰마쓰리는 미야코나 야에야마의 일부에서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오늘날에 행해지고 있는 세쓰가와리(節替わり)·도시가와리(年替わり)의 성격을 띠는 시쓰이제(シツイ際)로 …この神話でいう節祭は、宮古や八重山の一部で夏から秋にかけて今日でも行われている、節替わり・年替わりの性格を有するシツイ際のことであり、…

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세쓰마쓰리는 절기가 바뀌거나 해가 바뀔 때 행해지는 마쓰리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뱀의 생태관찰을 통해 탈피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뱀은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방해한 존재로서 뱀은 신적인 존재이지만 뱀신에

2) 赤峰正信(1998)『シマの見る夢』ボーダーインク, p.9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부정적인 관념이 나타나 있다.

<사례3>과 <사례4>에서 뱀은 탈피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요시노히로코(吉野裕子)³⁾는 뱀의 탈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뱀의 탈피는 문자 그대로 허물을 벗다는 의미로 뱀의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뱀은 탈피하지 못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탈피에 온힘을 다한다. 뱀의 생활 사이클은 탈피에 달려 있어서 탈피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 뱀의 건강, 성장의 정도, 살고 있는 환경의 적합성 등을 판단할 수 있다. 蛇の脱皮は文字通り抜け出るのであって、蛇の生活の中で脱皮は大きなウエイトを占めている。もし脱皮ができなければ、蛇は死ななければならないほどの重要事で、蛇が脱皮にかけるエネルギーは恐ろしいほどのものがある。蛇の生活のサイクルは脱皮にかかっているようなもので、脱皮をよく観察することでいろいろのことがわかる。健康および成長の度合い、環境の可否など、すべて脱皮によって判断できる、というより、脱皮によってしか判断できない。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뱀은 탈피를 통해 죽음으로부터 매번 재생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로 인간보다 우월한 신적인 존재라는 관념을 낳게 했다고 본다. 또한 뱀이 와카미즈를 끼얹는 행위는 뱀이 수신(水神)의 관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례 3>과 <사례 4>는 세쓰마쓰리 날에 와카미즈를 길어 오는 풍습이 뱀과 관련된 의례였음을 알 수 있다.

<사례 1>과 <사례 5>, <사례 6>은 해변 마쓰리와 관련된 이야기로 뱀은 인간에 의해 퇴치되거나 인간으로 변신한 뱀의 정체가 밝혀지고 있다. 인간으로 변신한 뱀에 의해 임신한 여성이 바닷가에 가서 뱀 새끼를 유산시킨다는 것은 뱀신에 대한 의례가 예부터 바닷가에서 행해졌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고지마(小島)⁴⁾씨에 따르면

…오키나와제도에서는 ‘뱀사위 맞이’는 3월 3일의 ‘하마구다리(浜下り)’ 행사의 유래로써 알려져 있다. 뱀은 독사인 하부가 아니고 아마카타이다. …하마구다리(浜下り)와 관련하여 오키나와제도에는 일반적으로 여자아이가 밭에 있을 때 홀리거나 야외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가 뱀의 아이를 임신하는 전승이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뱀사위 맞이의 3월 3일형이 오키나와본토 중 남부지역, 미야코제도, 야에야마제도에 현저하다. 沖縄諸島では、「蛇簀入」は三月三日の「浜下り」の行事の由来として知られている。蛇は毒蛇のハブではなく、アカマタである。…この浜下りと関連して、沖縄諸島には、一般に、娘が畑に出ていて蛇に見入られるとか、野外で昼寝を

3) 吉野裕子(1999)『蛇：日本の蛇信仰』講談社, pp.33-34

4) 小島環礼 編著(1991)『蛇の宇宙誌』東京美術

していて、蛇の子をみごもるとかいう伝えが廣く知られている。三月三日型は、沖縄本島の中、南部、宮古諸島、八重山諸島に顕著である。

라고 기술하고 있다. 뱀은 수신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하게 갖고 있고, 또한 뱀신을 숭앙하는 의례가 세월이 흐르면서 단지 인간들을 위한 마쓰리 또는 해변 놀이 형태로 변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 뱀과 우타키

다음은 오키나와 뱀 설화 중에 뱀과 우타키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두 편이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7> 밤에 딸을 찾아오는 구렁이(大蛇)와 하리미즈 우타키

미야코지마(宮古島)의 다이라스미야(平良偶屋)지방에 15세인 딸이 뜻밖에 뱀에게 홀려 임신하게 되었다. 밤에 딸의 처소로 찾아오는 남자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바늘을 꽂아두었다. 날이 밝자 부모가 딸을 데리고 그 실이 이어진 곳을 따라가 보니 하리미즈의 석굴 안에 구렁이 한 마리가 꼬리를 들고 있었다. 그 날 밤 딸의 꿈속에 구렁이가 나타나 말하기를 “나는 그 옛날에 이 섬을 창건한 연각(戀角)의 후손이다. 천신인데 뱀의 모습으로 변하여 나타난 것이다. 단지 이곳에 호국신을 모시게 하려고 지금 왔다. 앞으로 반드시 여자아이를 세 명 낳을 것이니, 나이가 세 살이 되거든 그 아이들을 안고 반드시 하리미즈(漲水)로 데려오도록 하여라”라고 하였다. 과연 꿈에 일러준 대로 세 여자아이가 태어나서 세 아이를 데리고 하리미즈로 갔다. 구렁이는 세 아이를 데리고 우타키안으로 들어가 사라져 수호신이 되었다. 구렁이는 마침내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 속을 달리며 빛을 발하고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모두 이를 우타키로서 숭신(崇信)하였다.

<사례 8> 뱀 데릴사위(2)

미야코 북쪽에 예쁜 여자가 있었는데 매일 밤 멋진 남자가 찾아와 임신해서 딸을 두 명 낳았다. 처음 만나는 남자를 애들의 아버지로 하기로 하고 이 여자는 딸을 데리고 발길이 닿는 대로 가다보니 커다란 뱀이 높은 산에 꼬리를 내려뜨리고 있었다. 가만히 보니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서 저 뱀이 아이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해 애들에게 말하니 한 명은 뱀의 머리를 껴안고 다른 한 명은 꼬리 부분을 껴안고 울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니노화노마키다

우타키가 있다. 거기에 두 딸이 모셔져 있고 그 우타키의 신은 뱀이 아니었을까?

<사례 7>과 <사례 8>에서는 뱀신의 화신인 멋진 남자가 여자를 찾아와 임신하여 인간이 탄생하는 점과 태어난 아이들이 우타키의 신이 된다. 뱀이 신으로 숭앙되고 멋진 남자로 변신하여 여자를 찾아온다는 관념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일까에 대해서 요시노히로코⁵⁾는

과충류 특히 뱀·거북이의 두상이 남근과 닮아 특히 머리에서 꼬리까지가 하나의 막대기의 형태인 뱀은 신성한 신으로 여겨졌다. 뱀을 성성과 관련시키는 정도는 고대로 올라갈수록 노골적이며 심하다. 성에 대한 동경, 숭배, 외경, 환희, 이들이 응집된 것이 신으로 생각하여 그 상징을 뱀으로 받아들였다. 爬虫類ことに蛇・亀の頭部は男根に相似であり、とりわけ、頭から尾に至るまでが一本棒になっている蛇は、神聖な神のそれとして受け取られる。蛇から性への連想の度合いは、古代にさかのぼるほど露わで激しい。性に対する憧れ、崇拜、畏怖、歓喜、それらが凝集して神与のものと考えられ、その象徴が蛇として捉えられる。

라고 서술하고 있다. 고대인들이 ‘자연으로서의 뱀’을 보고 관찰한 사실을 근거로 뱀을 신으로까지 숭앙시켰고 또한 멋진 남성으로 변신하여 여성을 찾아온다는 관념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뱀과 우타키의 관련을 고찰하기 전에 오키나와에서 우타키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나코호쇼(名幸芳章)⁶⁾의 주장을 인용해 보기로 하겠다.

…우타키는 그들의 보호자이며 종교적 지배자인 신이 거처한다고 여겨진다. 또 부락주민의 수호신인 동시에 우타키신과 주민은 혈연적인 관계로 이어져 이른바 시조와 씨족 관계가 성립된다고 일부에서는 생각되어졌던 것이다. 그래서 촌락을 구성하는데 우타키는 불가분의 것이고, 그 신의 은혜 하에 부락의 존립이 보장되며 정치적인 안정이 있는 것이다. …お嶽は彼等の保護者であり、宗教的支配者である神が住み賜うと考えられ、又、部落住民の守護神であると同時に、お嶽の神と住民は血縁的關係を以て結ばれ、いわゆる始祖と氏子の關係が成立するものであるとも一部には考えられていたものである。それ故、村落の構成にはお嶽は不可欠のものであって、その神の恩恵の下に部落の存立が保証され、政治の安定があったのである。

<사례 7>과 <사례 8>을 나코호쇼의 설에 적용시켜 보면 인간과 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5) 吉野裕子(1999)『蛇：日本の蛇信仰』講談社, p.55

6) 名幸芳章(1971)『沖縄の風習と迷信』護国寺

이 우타키 안으로 들어가 우타키 신이 되었다는 것은 신과 인간의 교혼(交婚)의 관념과 함께 뱀도 인간의 시조로 관념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 뱀과의 혈연적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뱀은 여전히 신적인 존재이지만, 뱀은 인간으로 변신하여 인간을 찾아오고 인간과 뱀의 사이에서 신적인 인간이 태어나는 혈통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 친밀한 관계가 된다. 그러나 뱀과 인간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인간보다 뱀은 우위적인 위치에 있다.

<사례 7>과 <사례 8>에서 여성과 뱀신의 교혼을 요시노히로코는

일본 원시 마쓰리는 뱀신을 목욕 제계하고 모시는 여성무당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 마쓰리의 첫째 의미는 ‘여성 무당이 뱀신과 교합(交合) 하는 일’ 둘째 의미는 ‘뱀신을 낳는 일’ 셋째 의미는 ‘실제로 뱀을 잡아와서 사육하고 모시는 일’로 나뉜다. ...그러나 시대가 내려오면 여성무당이 뱀신과 교합하는 흥내를 내고 무당이 신의 아이를 임신하여 최종단계에서는 무당 자신이 뱀신 즉 현인신(現人神)으로서 부락 사람들 앞에 나타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일인삼인역(一人三人役)을 한다. 결국 마쓰리는 여성 무당의 ‘흥내내기’를 시종일관하게 된다. 이형태는 오키나와 및 남쪽 섬들에 남아 있는 제사형태이다. 日本原始の祭りは、神蛇と、これを齋き祀る女性蛇巫を中心に展開する。その祭りの第一義は、「女性蛇巫が神蛇と交わること」。第二義は「神蛇を生むこと」。第三義は「現実には蛇を捕らえてきて、飼育し、祀ること」に分解される。...しかし、時代が降れば、巫女は神蛇と交わる擬きをし、巫女自身が神の種を宿して妊り、最終段階では自ら神蛇、現人神として部落の人々の前に顕現し、村人と交歓し、一人三人役をこなす。つまり、祭りは巫女の「擬き」に終始することになり、この形は現在まである程度、沖縄および南の島々に残る祭祀形態である7)。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례 7>과 <사례 8>에 등장하는 여성은 뱀신을 모시는 여성무당의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나 있다.

2.3 뱀과 인간의 혼인

다음은 오키나와 뱀 설화 중에 뱀과 인간의 혼인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세 편이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9> 뱀 데릴사위-행복한 결혼형

딸의 어머니가 밭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와서 도와준다. 어머니는 그 청년에

7) 吉野裕子(1999)『蛇：日本の蛇信仰』講談社, p.13

게 원하는 바를 물었더니 딸을 한 명 달라고 한다. 세 번째 딸이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낳아서 행복하게 살았고 부모에게도 효도를 했다. 뱀은 신의 화신으로 세 명의 딸들의 부모에 대한 애정을 시험한 것이다.

<사례10> 뱀 데릴사위-알 탄생형

딸이 남자의 이마에 실을 펜 바늘을 꽂아 뒤를 따라가 보니 동굴로 들어가 있어서 인간이 아님을 안다. 딸은 임신해서 아카마타의 알을 낳는다. 그 알에서 미인이 태어나 키워서 여섯 명은 노로ノロ의 집에 주고 한 명은 부모가 키운다.

<사례11> 뱀 부인(蛇女房)

어떤 남자가 절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거기에 예쁜 여인이 와서 그 남자의 시중을 들어 주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고 여자가 임신을 했다. 여자는 남자에게 출산하는 모습을 보지 말라고 부탁한다. 남자는 여자와의 약속을 어기고 출산하는 모습을 보니 독뱀이 아이를 낳고 있었다.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여자는 한 쪽 눈을 빼서 아이의 입에 넣어 주고 혼자 떠나 버린다. 아이는 그 눈을 빨며 성장하는데 눈은 점점 작아졌고 결국에는 잃어버리고 울었다.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던 독뱀이 다시 와서 하나밖에 없는 눈도 뽑아주고 아이가 자라면 절의 종을 쳐서 몇 시인지를 알려 달라고 한다. 그 때부터 이 절에서는 종을 치게 되었다고 한다.

<사례 9>와 <사례 10>과 <사례 11>에서 인간이 뱀과의 혼인에 대한 거부감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뱀과 인간 둘 사이에 뱀이 아닌 인간이 태어나 잘 성장한다는 점이다. <사례 9>와 <사례 10>에서는 뱀이 남성으로 변신하여 여성을 찾아오는 형태인데 반하여 <사례 11>의 경우는 뱀이 여성으로 변신하여 남성과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는다. 남자는 여자가 출산하는 모습을 보지 말라는 금기를 지키지 않아서 여자의 정체가 밝혀지자 아이를 두고 떠나버린다. 여성으로 변신한 독뱀은 아이를 위해 자신의 두 눈을 빼서 주는 모성애를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뱀이 인간으로 변신이 가능한 점에서는 신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인간과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뱀과 인간은 동등한 관계로 그려져 있다. 또한 결국은 인간으로 변신한 뱀의 정체가 밝혀지고 결혼이 결렬된다는 것은 이류(異類)와의 혼인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관념을 엿볼 수 있다.

2.4 뱀과 인간의 대결

다음은 오키나와 뱀 설화 중에 뱀과 인간의 대결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일곱 편이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12> 큰 뱀 구치후라차 퇴치

기센바루(喜瀬武原)에 가는 길에 구치후라차라는 큰 뱀이 있었는데 그 입은 온나손(恩納村)의 아후소(安富祖)와 나카마(名嘉眞)쪽으로 향하고 있고 꼬리는 긴(金武)의 곳까지 달하고 있다. 그리고 아주 큰 입을 벌리고 “아후소(安富祖)를 먹을 거야” “나카마를 먹을 거야”라고 해 아후소의 부락과 나카마 부락 쪽으로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 탓인가 아후소와 나카마는 해마다 벼농사도 고구마농사도 흉작이었다. 그런데 구치후라차의 꼬리가 향하고 있는 긴촌에서는 매년 풍작이어서 모두 기뻐했다고 한다. 아후소와 나카마 사람들이 모여 흉작의 원인을 구치후라차가 “아후소를 먹을 거야” “나카마를 먹을 거야”라고 울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뱀을 죽이기로 했다. 긴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아후소와 나카마 남자들이 뱀을 죽이려고 갔지만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긴의 청년이 화살을 쏘아 죽였다.

<사례 13> 아라무루치의 인신공양

아라(屋良)에 있는 무루치(漏池)라는 연못에서 뱀이 나와 밭의 농작물, 양이나 돼지 등 살아 있는 것들을 전부 먹어 버렸다. 이 사실은 안 유타가 “열세 살에서 열네 살 정도로 아직 남자를 모르는 여자애를 제물로 바치면 뱀이 이 여자애를 먹고 죽게 되고 비도 내릴 것이라 ”고 했다. 어느 가난한 집 딸이 제물로 바쳐지게 됐다. 뱀이 사는 연못에서 제를 지내고 있는데 비바람이 치고 천둥번개가 쳐서 뱀은 죽었고 딸은 제물로 바치지 않아도 되었다.

<사례 14>

게이부락에서는 옛날에 가나구시쿠타라(カナグシクテイラ)라고 불리는 동굴에 커다란 뱀이 살았는데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 슈리(首里)에서 주지스님을 초대해 그 뱀을 퇴치했는데 그 때 주지스님이 숙사로 했던 곳이 우후야쿠(ウフヤク)였고 그 후 우후야쿠에는 그 주지스님을 신으로서 모시게 되었다.

<사례 15>

기노자촌(宜野座村)의 마쓰다(松田)부락에 우타키(御嶽) 근처에 ‘가미야(神屋)라고 불리는 사당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호카마계의 조상을 모시는 향로(香爐)와는 달리 보주우가미(坊主御神)를 모시는 향로가 있다. 그 유래는 가미야 앞에 있는 메가(前川)라는 강 근처에 동굴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커다란 뱀이 살고 있었다. 그 뱀을 퇴치하고 사람들을 구한 주지스님을 보주우가미로서 모셔졌다고 한다. 더욱이 그 주지스님의 무덤이 현재도 메가 동굴 근처에 남아 있다고 한다.

<사례 16>

큰 강 일대의 수원(水源)을 지키는 수신(水神)의 화신인 큰 뱀이 살고 있었다. 큰 뱀은 해마다 독신 여성을 제물로 요구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하천을 범람시켜 전답을 황폐시키며 사람들을 괴롭혔다. 이를 안 닛슈쇼닝(日秀上人)은 불쌍이 여겨 동굴 입구에서 주문을 외워 염력으로 대사를 중유동 깊이 봉해 퇴치했다.

<사례 17> 뱀 데릴사위-할머니 옷을 입은 모습

세 명이 딸을 둔 농부가 가뭄으로 농사가 안 되서 울고 있을 때 한 청년이 나타나 딸을 주면 논밭에 물을 대주겠다고 해서 허락한다. 그 청년은 뱀으로 변신해서 물을 대준다. 세 번째 딸이 한 되의 팔과 바늘을 준비하고 뱀과 결혼하기 위해 산으로 찾아간다. 딸은 바늘을 뱀의 입 속으로 집어넣어 뱀을 퇴치하고 돌아오려는데 고양이가 할머니 옷으로 갈아입고 가라고 한다. 그대로 했더니 산의 도적들을 피해서 마을로 내려올 수 있었고 후에 부자 집 아들과 결혼하게 된다.

<사례 12>에서 <사례 17>까지에서 인간과 뱀이 대결하는 이유는 뱀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괴롭히는 동물로 관념되어 퇴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퇴치방법은 화살, 비바람과 천둥번개, 스님의 주문, 팔과 바늘을 사용하고 있다. 뱀을 퇴치한 스님은 신으로 모셔지고 있는데 뱀 신앙이 불교 사상에 의해 퇴색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뱀은 신적인 존재도 아니고 인간과 혼인할 수 있는 친근한 존재도 아닌, 인간에게 해를 주는 존재로 인간의 힘으로 퇴치할 수 있는 존재로 등장한다. 뱀신 중심의 세계관이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새로운 종교와 문화의 등장으로 뱀신 신앙이 해체되고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가 커질수록 뱀신에 대한 의례는 사회에서 기반을 잃고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변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제주 뱀 설화 유형 분류 및 분석

제주의 뱀 설화에 나타난 사상이나 관념이 제주인의 의식세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사상(事象)이라는 점을 고찰하기 위해 제주 뱀 설화를 뱀과 집안, 뱀과 당, 뱀과 인간의 대결, 인간이 뱀으로 환생하는 유형으로 분류하여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뱀과 집안에는 뱀을 집안의 신으로 모시는 내용의 설화를, 뱀과 당은 당의 신이 뱀인 설화를, 뱀과 인간의 대결은 인간이 뱀을 퇴치하는 설화를, 인간이 뱀으로 환생하는 것은 인간이 욕망이나 죄 때문에 뱀으로 환생하는 설화를 기재한다.

우선 제주 뱀 설화를 네 유형으로 나누어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사례	설화 제목	출 처	지역 명
뱀과 집안	1	뱀 이야기	『제주설화집성(1)』 pp.423-424	북제주군 한림읍 옹포리
	2	양돈어네 조상	『한국구비문학대계』9-2 pp.240-246	제주시 노형동
	3	굴치 영감과 토산당 뱀	『제주도 전설』 pp.252-256	북제주군 구좌면
	4	사신(蛇神)	『한국구비문학대계』9-3 p.1118	표선면 가시리
뱀과 당	5	섣심과 뱀	『남국의 전설』 pp.153-154	북제주군 한경면
	6	사신	『한국구비문학대계』9-3 p.1115	표선면 토산리
	7	괴노깃당	『남국의 전설』p.11	
뱀과 인간의 대결	8	이시미와 최판관	『한국구비문학대계』4-1 pp.552-554	
	9	김녕사굴(金寧蛇窟)	『한국구비문학대계』9-1 pp.39-41	북제주군 구좌면
	10	광정당(廣靜堂)의 큰 뱀	『한국민간전설집』 pp.178-179	
	11	병와(甁窩)선생 괴물퇴치	『한국구비문학대계』7-1 pp.42-43	
	12	영천이목사(永川李牧使)	『제주설화집성(1)』 pp.190-199, pp.416-422	

인간이 뱀으로 환생	13	구정승과 뱀 아들	『제주설화집성(1)』 pp.287-295	북제주군 한림읍
	14	뱀으로 환생한 박씨	『제주설화집성(1)』 pp.824-829	남제주군 표선면
	15	구렁이가 된 막내	『제주설화집성(1)』 pp.154-163	북제주군 애월읍
	16	사신 칠성(蛇神 七星) (칠성 본풀이)	『제주도 신화』 pp.199-220	제주시 건입동

3.1 뱀과 집안

제주도 뱀 설화 중에 뱀을 집안의 신으로 모시는 이야기는 네 편이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뱀 이야기

목포에서 양식을 싣고 오던 배가 침몰직전에 놓이게 되는데 물이 새는 구멍을 큰 뱀이 막고 있어서 제주에 무사히 도착하게 된다. 그래서 이 뱀을 장씨 집안에서 모시게 되었다.

<사례 2> 양돈어네 조상

양돈어네 조상에는 부인이 세 명 있었는데, 시아버지의 제사 날 세 명 가운데 셋째 부인이 정성껏 지냈다. 그 날 밤 시아버지가 셋째 부인의 꿈에 나타나 장독 위에 흰 강아지를 놓아두고 가면서 다음날 찾으라고 했다. 셋째 부인은 시아버지 말씀대로 가보니 장독 위에는 뱀이 있었다. 그 뱀을 모셨는데 남편이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밭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부자가 되었다.

<사례 3> 굴칫영감과 토산당 뱀

어떤 사람이 아들과 토산리 여자의 사주를 봐달라며 굴칫영감을 찾아왔다. 영감은 자기 머느리로 삼으려고 여자의 사주가 못 쓴다고 거짓말을 했다. 혼인 날, 신부가 영감 집에 와서 방석에 앉자, 그 방석 밑에 있던 머리칼 같은 것을 독에 집어넣고 땅속에 묻었다. 머리칼 같은 것은 여자 집안에서 쫓아온 뱀신 즉 조상신이었다. 영감이 그 조상신을 잘 모시지 않고 땅 속에 묻었기 때문에 여자의 오빠가 병이 났다. 신부 아버지는 아들이 병이 난 원인이 영감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영감에게 직접 묻지 못했고, 영감도 아버지가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챘으나 모른 척하였다. 신부의 오빠가 사경에 이르자 아버지는 영감을

찾아간다. 영감은 눈물만 흘리는 아버지를 보고 가련하게 여겨 독에서 뱀신을 내어놓았다. 신부 오빠는 병이 낫고 신부는 아이를 갖는다. 신부가 아들을 낳은 날 저녁부터 열두 식구는 쇠고기에 쌀밥을 해 먹기 시작했고, 굴치영감네는 결국 재산을 탕진하여 집안이 망하게 되었다. 아들도 술을 많이 마셔서 일찍 죽었다.

<사례 4> 사신

사신을 위해 표선면 가시리 강씨댁에서 굿을 했다.

뱀과 집안에 대한 설화를 종합해 보면 <사례 1>에서 뱀은 바다에서 위기에 처한 인간을 도와주는 수신의 이미지와 그것을 계기로 장씨 집안의 신으로 모시게 된다. <사례 2>에서는 조상과 관련하여 집안에 부를 초래하는 신의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나 있다.

<사례 3>과 관련하여 뱀신에 대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당신(堂神)은 그 단골(信仰民)의 딸에서 딸로 꼭 따라오며 이 신을 숭앙하다 중단하면 집안이 망한다고 널리 이야기 된다. 그래서 일반은 그들 집안엔 장가들기를 꺼려하고, 그러니 그 단골이나 그들의 딸들은 그 신 숭앙을 비밀히 한다. 이상한 일은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가 숭앙을 중지하면 그 신은 그 여인에게 재해를 주지 않고 그의 남편에게 재해 질병을 주어 곤경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 그 단골들이 많아져 공공연히 될 때는 공동제장(共同祭場)인 당이 이루어진다⁸⁾.

<사례 3>에서는 뱀신은 조상신이며 잘 모시지 않으면 집안에 화를 초래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고 딸이 시집을 가면 뱀신도 따라간다는 제주 사람들의 관념이 잘 나타나 있다. <사례 4>처럼 제주도에는 뱀신을 잘 모시지 못해 화를 입었을 때 굿을 하는 사례가 많다. <사례 1>과 <사례 2>, <사례 3>은 뱀신이 집안 신으로서의 좌정하는 유래와 신의 이미지가 잘 나타나 있다.

3.2 뱀과 당(堂)

제주도 뱀 설화 중에 뱀을 당신으로 모시는 이야기는 네 편이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8) 玄容駿(1992)『巫俗神話와 文獻神話』集文堂, pp.106-107

<사례 5> 쏘섬과 뱀

옛날에 쏘섬에는 귀가 달린 새빨간 커다란 뱀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이 뱀은 용이 되는 것이 소원임으로, 매월 음력 초사흘날과 초여드렛날이면 용왕께 용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 드렸다. 3년을 하루같이 기도하니 어느 날은 용왕이 나타나 뱀에게, 쏘섬과 지귀섬 사이에 야광주를 숨겨 놓았으니 그것을 찾으면 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뱀은 야광주를 찾으려고 백 년 동안 헤매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고 바다 속에서 죽고 말았다. 그 후 부터는 비가 오려고 하면 뱀의 혼이 쏘섬에 서려 안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것을 뱀의 조화로 믿어 당을 만들고 신으로 모셔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사례 6> 사신

표선면 토산리 여드렛당 당신을 위하여 안덕면 창천리 강씨덕에서 굿을 했다.

<사례 7> 괴노깃당

경북 영천에서 온 목사 이형상이 김녕당의 「괴노깃당」의 사신을 죽인 후 집으로 돌아와 그 날 잠을 자는데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내일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었다. 이튿날 이 목사는 배를 잘 타는 김동지와 박동지라는 두 영감을 대동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 배가 돌아오는 도중 갑자기 배의 밑바닥이 터져서 배에 물이 들게 되었다. 배가 점점 침몰하여갈 즈음에 김동지와 박동지 영감은 하늘을 향해 축수(祝手)드리기를 “우리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살려줍서”하자 하늘에서 뱀이 배의 깃봉을 타고 내려와 구멍터진 배 밑바닥을 막았다. 그리하여 이들 영감은 무사히 제주시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때 김동지부인이 나서 구렁이에게 “내게 태운 조상이건 나의 치마봉에 기어들서”하며 치맛자락을 벌리자 뱀이 그 위로 올라와서 김동지 집으로 모셔가 섬기다가 제주시의 바닷가 「드리빌레」라는 곳으로 옮겨져 당신이 되었다.

<사례 5>에서 용이 되는 소원을 이루지 못한 뱀을 위해 사람들이 당을 만들고 신으로 모셔 제사를 지내는 배경에는 뱀의 혼을 위로하여 후탈을 없애려는 당시 사람들의 관념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례 6>에서는 마을의 당은 마을 전체의 안녕뿐만 아니라 한 집안의 안녕을 위해서 기원하는 곳임을 알 수 있다. <사례 7>에서 뱀신을 조상으로 관념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또한 집안신으로 모시다가 당신이 되기도 한다.

당은 부락제(마을굿)를 지내는 신당(神堂)으로서 부락수호신이 좌정해 있는 신성처(神聖處)인데, 그 신은 마을마다 다른 게 일반적이다⁹⁾. 당에서의 의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불

수 있다. 그것은 개인적 의례(儀禮)와 촌락적 의례다¹⁰⁾. 뱀신도 씨족사회에서는 씨족신의 성격을 띠다가 촌락을 이루게 되면서 각 씨족의 공동조신(共同祖神)으로 공동촌락의 수호신으로 변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조상신으로서의 뱀신이 당신으로 변천하는 과정에는 사회생활의 현실적 사실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3 뱀과 인간의 대결

제주도 뱀 설화 중에 뱀과 인간의 대결에 관한 이야기는 여섯 편이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8> 이시미와 최판관

옛날 제주도 한라산 밑 큰 굴에 뱀이 살았다. 해마다 사람을 한 사람씩 잡아먹었는데 못 잡아먹으면 흉년이 들게 한다. 제비뽑기를 해서 어떤 처녀가 제물이 되게 되었다. 충주에 사는 최판관이 제주 판관으로 가서 이 사실을 알고 나졸들을 시켜 옥노를 놓아 잡아서, 칼과 활로 뱀을 죽였다. 최판관의 꿈에 하얀 노인이 나타나서 내일이면 죽으니 빨리 돌아가라고 했다. 돌아가되 누가 뒤에서 불러도 돌아보지 말라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천둥과 소낙비가 쏟아지면서 누가 뒤에서 불렀다. 돌아보지 않고 집에 돌아와 문을 열면서 돌아보다 죽게 되었다.

<사례 9> 김녕사굴¹¹⁾

서판관이 뱀을 죽이나 하인이 말을 걸지 말라는 금기를 어겨 죽게 되었다.

<사례 10> 광정당의 큰 뱀

광정당 앞을 지나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했고, 말을 타고 가던 사람도 말에서 내려 예배하고 지나갔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말이 다리를 절어서 더 나아갈 수 없다고 한다. 숙종 대왕 때 이형상 목사가 그 앞을 지나는데 말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 했으나 말이 더 나아가지 않았다. 목사는 말 제물을 바치자 신주인 큰 뱀이 나타났다. 목사는 큰 칼을 빼어서 뱀을

9) 玄容駿(1992)『巫俗神話와 文獻神話』集文堂, p.19

10) 玄容駿(1992)『巫俗神話와 文獻神話』集文堂, p.145

11) 이외에도 김녕 사굴에 대한 설화는 많다(『한국구비문학대계』9-1 pp.191-193, 9-2 pp.637-638, 9-2 pp.719-721/『남국의 전설』pp.154-155/『제주도 전설』 pp.114-116, pp.116-118, pp.118-119/『한국민간전설집』 pp.175-176/『한국구전설화(전라남도 제주도편)』 p.206

죽이고 사당을 불살라 버렸다. 신당 5백을 모조리 불태워서 미신 타파에 온힘을 기울였다.

<사례 11>병와선생 괴물퇴치

옛날에 제주의 일이다. 병와, 이형상(李衡祥)이 50세 때, 제주목사로 부임해 보니, 동짓날 저녁에 늘 팻국을 써서 당집에 갖다 놓고, 처녀를 하나씩 바쳤다. 병와가 이걸 없애려고 처녀 대신 들어가 큰 이시미가 나타나자 태워버렸다. 그 뒤로 고을이 편하게 되었다.

<사례 12> 영천이목사¹²⁾

영천이목사가 제주도에 도임하고 보니 당(堂)이 오백, 절이 오백이나 되며, 뱀을 귀신으로 모시고 있었다. 도임하여 전도를 순력(巡歷)하는데 토산(兎山)에 이르러 뱀을 장검으로 죽이는 가 하면 당 오백, 절 오백을 전부 불태우고, 김녕사굴의 뱀까지 죽인다. 그런가 하면, 후손 없는 묘, 별초·제사를 하지 않는 묘를 잘 보살피도록 선정을 베푼다. 임기를 마치고 떠나려 할 때 꿈속에 고총(古塚)귀신이 현몽(現夢)하여 당 귀신과 절 귀신의 음모를 일깨워 주며 일찍 떠날 것을 알려 준다. 그러나 고향에 이르고 보니 아들 형제가 죽었고, 부인은 몹시 비탄에 빠져 남편 이목사를 책망한다. 그러나 이목사는 물을 물었다 뱀으면서 피를 함께 토해 그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

<사례 8>과 <사례 9>와 <사례 12>에서는 뱀을 퇴치한 후에 본인 또는 가족이 죽게 되는 경우이다. <사례 8>과 <사례 11>에서는 뱀이 제물로 처녀를 요구하고 있다. <사례 10>에서는 뱀을 퇴치하는 것은 미신타파이고 <사례 11>에서는 뱀을 퇴치한 후 고을이 편안해졌다는 것은 뱀신을 미신으로 여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의식의 변화를 반영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사례 9>을 포함해 아홉 개의 김녕사굴 뱀을 판관이 죽이는 이야기가 있다. 이 중에서

12) 『제주설화집성(1)』 pp.190-199 영천 이목사는 강패였다. 신하들이 그를 제주목사로 보냈다. 제주 목사는 도임하기만 하면 다음날 죽는 일이 있었다. 도임 첫날밤 혼자 방에 누워 있으니, 우레 소리를 내면서 귀신이 나타났다. 귀신은 자기가 북벌을 지휘했던 장군이나 잘못이 있어 제주로 유배 왔고, 유배지에서 죽은 뒤 봉제奉祭를 받다가 요즘 봉제를 하지 않으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고 했다. 이전 도임자들은 무서워서 죽었던 것이다. 어느 날 아전들을 소집하니 이방이 빠졌다. 이방의 딸을 용수에 있는 당에 제물로 바치려 하고 있었다. 희생은 뱀이 잡아먹는 것이라고 했다. 영천 이목사는 뱀이 나오자 칼로 처서 시체를 불살라 버렸다. 또 백성을 협잡하는 당과 절을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오백이나 되는 당과 절이 불타 없어지자, 거기서 얻어먹던 귀신들이 옥황상제에게 하소연했다. 이목사를 죽이기로 결정되자, 전날 도움을 받은 장군 귀신이 곧 이 사실을 알려 주었다. 바다에서 빠져 나갈 때 혹 뒤를 돌아보면 죽을 것이므로 병풍으로 뒤를 가리고 떠나도록 했다. 이목사가 빠져나가는 것을 알아차린 귀신들이 뒤쫓아 가며 배를 뒤집으려고 큰 파도를 일으켰다. 제주 바다의 수평선을 넘어가니, 귀신들은 힘이 부쳤는지 더 이상 어쩔 수 없었다.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이야기에서 뱀을 죽인 자는 후탈로 죽게 된다.

<사례 12>에서 巫神奉祀處인 <당>을 500이나 부수었다는 것은 수의 많음을 말하는 것이겠는데, 『耽羅誌』에도 보면 조선조 숙종 때의 李衡祥 牧使가 「三邑淫祠와 佛宇 百三十餘個所焚燒하고 巫覡 四百餘名을 各其 歸農시켰다.¹³⁾」고 하고 있으니 충격적인 타파와 개혁이었음이 사실이겠다¹⁴⁾. 뱀신을 미신으로 여겨 제주에 부임한 목사들이 미신타파에 앞장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 목사는 도입하기만 하면 다음날 죽는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제주에 부임한 목사들에게 있어서도 뱀은 퇴치해야만 하는 존재이지만 또한 두려운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 당시 지식층에 있어서는 뱀을 신으로 여기지 않고 미신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 인간이 뱀으로 환생

제주도 뱀 설화 중에 뱀과 인간이 뱀으로 환생하는 이야기는 네 편이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13> 구정승과 뱀 아들

도술에 뛰어난 구씨 성을 가진 형제가 있었다. 형은 자기네 부모를 어느 골짜기에 내다 버리면 하늘로 올라간다는 신앙을 맹신하는 부하와 같이 구부러진 송곳 여러 개를 준비하고 그곳으로 갔다. 부하는 부모를 어느 넓은 반석 위에다 두고 돌아왔다. 뒷날 다시 그곳에 가 보니 큰 구렁이가 송곳에 걸려 죽어 있었다. 부모도 옆에서 기절하여 죽어 있었다. 구렁이를 죽인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형은 아기를 낳았다. 동생은 아기가 뱀의 화신임을 알고, 형에게 아이를 죽이도록 하였으나 형은 막무가내였다. 동생은 파족문(破族文)을 받고 형제의 의를 끊었다. 몇 년이 지나 구정승은 아들 때문에 온 집안이 멸족되는 화를 입었다. 동생은 파족문 때문에 이를 벗어났다.

<사례 14> 뱀으로 환생한 박씨

김씨, 박씨, 이씨라는 세 친구가 있었다. 신선이 된 김씨는 박씨와 이씨에게 제일 원하는 바를 물어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준다. 어느 날 김씨는 허름한 옷차림으로 박씨와 이씨를 찾아가는데 박씨는 김씨를 박대하여 뱀으로 환생하게 되었고, 잘 대접한 이씨는 신선이 되었다.

13) 淡水契編『耽羅誌』p.466

14) 玄容駿(1992)『巫俗神話와 文獻神話』集文堂, p.67

<사례 15> 구렁이가 된 막내

옛날 삼형제가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다가 결심한 바 있어 도학을 배우기로 했다. 산중으로 올라가 스승을 정해놓고 십년간 정진하였다. 형제들은 서로 함께 합숙을 하였다. 큰형이 식사 당번일 때는 두 동생에게 밥을 많이 남겨주고, 자기는 아주 적게 먹었다. 둘째는 꼭 고르게 배분하였다. 막내는 자기만 많이 먹고 형들은 아주 조금씩 주었다. 도학을 다 배운 뒤 삼형제가 각자 자기 갈 길을 찾아 떠났다. 결국 큰형과 둘째는 신선이 되고 욕심이 많은 막내는 구렁이가 된 채 살았다.

<사례 16> 사신 칠성

장나라 장성룡과 송나라 송설룡 부부는 자식이 없어 100일 불공을 드려서 딸을 얻었다. 딸이 일곱 살 때 부모는 벼슬살이 때문에 떠나게 되었다. 딸은 부모가 떠난 지 이레째 되는 날 부모를 찾으러 집을 나서나 기진맥진해 있었다. 그 때 부모가 불공을 드린 절의 스님이 딸을 데려간다. 부모는 벼슬도 버리고 딸을 찾아다니다가 딸을 데려간 스님에게 딸이 어디에 있는지 집을 쳐달라고 했다. 스님이 딸을 노들돌 밑에 숨겨놓고 딸이 있는 곳을 맞춘 듯 행동하자 딸 아버지는 화가 나서 스님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스님은 술법을 써서 도망친다. 딸이 스님의 아기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된 부모는 딸을 무쇠석갑에 넣어 동해에 띄웠다. 무쇠석갑은 제주도 함덕리 서무오름에 도착하는데 그것을 일곱 해녀가 발견해서 서로 가지려고 싸웠다. 그것을 본 송첨지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했다. 그 속을 보니 딸이 뱀을 일곱 마리 낳고 자신도 뱀으로 환생해서 뱀 여덟 마리가 있었다. 뱀에 손 댄 송첨지와 일곱 해녀는 병이 나지만 사신을 위해 굿을 하자 일시에 거부가 되었다. 이들은 서무오름에 당을 만들고 사신을 모셨다.

<사례 13>에서는 뱀을 죽이면 뱀의 화신이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관념이 반영된 이야기이다. <사례 14>에서는 의리를 지키지 않는 자가, <사례 15>에서는 욕심이 많은 자가 뱀으로 태어난다는 관념이 내포된 이야기이다.

<사례 16>에서는 부모를 보고 싶어 찾아다니던 7살 난 딸이 스님에 의해 임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불효하다 하여 무쇠석갑에 담아 유배해 버린다. 이것은 사실 어린 아이를 두고 떠난 부모와 임신시킨 스님의 책임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딸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부모가 스님의 아기를 임신한 것에 대한 처벌이 딸을 무쇠석갑에 넣어 동해에 띄웠다는 점이다. 이 띄우는 의도가 죽으라고 하는 것임은 딸을 무쇠석갑을 해녀가 발견했을 때 딸이 뱀

일곱 마리 놓고 자신도 뱀으로 환생해서 뱀 여덟 마리가 있었다는 대목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제주도에 와서 서무오름의 당에 이들 뱀이 신으로 모셔진다는 점이 그 당시 사람들의 뱀신에 대한 의식세계를 반영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나가며

오키나와와 제주의 뱀 설화에 나타난 당시 사람들의 뱀에 대한 관념 및 의식세계에 대해 고찰 해보았다. 두 지역의 뱀 설화를 통해서 뱀신 신앙은 두 지역의 특수한 토속적 신앙현상으로서 두 지역민들의 의식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뱀을 신으로 숭앙할 것인가, 적으로 퇴치할 것인가라는 의식세계가 뱀 설화에는 잘 나타나 있다.

두 지역 모두 뱀신의 신앙형태나 출현과정이 일정치 못하다. 뱀신을 인격화하여 조상신으로 관념하는 근원은 조상숭배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여기에 제시한 뱀 설화는 현실에 기반을 둔 두 지역의 민속이요, 그 설화의 형성화 과정이란 뱀신에 대한 추상적인 의식세계에서 구체적 의식세계로의 체계화의 과정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두 지역에서 뱀신은 수신, 조상신, 마을의 수호신의 이미지는 공통적인 특징이었다.

두 지역의 뱀에 대한 관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키나와에서는 뱀과의 혼인을 신성한 것 또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관념이 나타나 있는 반면, 제주에서는 뱀과 인간의 혼인에 대한 관념이 없다. 둘째, 오키나와에서는 뱀이 인간으로 변신인 경우는 인간과의 혼인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인 반면, 제주 뱀 설화에서는 인간의 욕심이나 죄 등과 관련하여 인간이 뱀으로 환생하고 있다. 셋째, 오키나와 뱀 설화에서는 뱀이 인간으로의 변신은 일시적인 것인 반면, 제주의 뱀 설화에서는 인간이 죽음을 매개로 해서 다시 뱀으로 환생한다는 관념이다. 넷째, 오키나와에서는 뱀신에 대한 의례가 퇴색하여 하나의 마쓰리(놀이)로 변용된 형태인데 반해, 제주에서 일부에서는 뱀신에 대한 의례로써 굳이 행해지고 있다.

【參考文獻】

- 金榮敦·玄容駿(1980)『한국구비문학대계』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_____(1981)『한국구비문학대계』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金榮敦·玄容駿·玄吉彦(1985)『탐라문화총서(2)』탐라문화연구소
 秦聖麒(1978)『남국의 전설』一志社
 _____(1975)『南國의 民俗』교학사

- _____(1980)『耽羅의 神化』평범사
玄容駿(1996)『제주도 신화』瑞文堂
_____(1996)『제주도 전설』瑞文堂
_____(1992)『巫俗神話와 文獻神話』集文堂
赤峰正信(1998)『シマの見る夢』ボーダーインク
稲田造二・小澤俊夫責任編集(1983)『日本昔話通観』同朋舎
遠藤庄治(1983)『北中城の伝説』北中城村教育委員会
嘉手納宗徳編訳(2011)『球陽外卷遺老説傳』角川学芸出版
宜野座村誌編集委員会編(1991)『宜野座村史』宜野座村役場
岸本孝根(2005)「韓・日 畵 話 比較 研究-濟州道와 오키나와 地域을 中心으로-」韓南大學校 大學院碩士學位
論文
金武區誌編集委員会編(1994)「金武區誌-戰前編上」金武區誌編集委員会
小島瓊礼(1991)編著『蛇の宇宙誌』東京美術
名幸芳章(1971)『沖縄の風習と迷信』護国寺
ネフスキー・ニコライ, 岡正雄編(1971)『月と不死』平凡社
福田晃・岩瀬博・遠藤庄治編者(1980)「沖縄の昔話」『日本の昔話』30 日本放送出版協会
吉野裕子(1999)『蛇：日本の蛇信仰』講談社

논문투고일 : 2015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07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07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07월 20일

〈要旨〉

도서(島嶼)에서 본 뱀 설화 비교고찰

- 오키나와와 제주의 뱀 설화를 중심으로 -

오키나와와 제주는 민속문화가 풍부한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민속종교의 영역에서 본토와는 이질적인 민속문화가 전승되고 있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오키나와와 제주 지역의 민속종교 중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신앙으로 뱀 신앙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오키나와와 제주의 뱀 설화에 나타난 당시 사람들의 뱀에 대한 관념 및 의식세계에 대해 고찰 해보았다. 뱀을 신으로 숭앙할거인가, 적으로 퇴치할 것인가라는 의식세계가 뱀 설화에는 잘 나타나 있다. 두 지역 모두 뱀신의 신앙형태나 출현과정의 일치점이 없다. 뱀신을 인격화하여 조상신으로 관념하는 근원은 조상숭배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특히 두 지역에서 뱀신은 수신, 조상신, 마을의 수호신의 이미지는 공통적인 특징이었다.

두 지역의 뱀에 대한 관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키나와에서는 뱀과의 혼인을 신성한 것 또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관념이 나타나 있는 반면, 제주에서는 뱀과 인간의 혼인에 대한 관념이 없다. 둘째, 오키나와에서는 뱀이 인간으로 변신인 경우는 인간과의 혼인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인 반면, 제주 뱀 설화에서는 인간의 욕심이나 죄 등과 관련하여 인간이 뱀으로 환생하고 있다. 셋째, 오키나와 뱀 설화에서는 뱀이 인간으로의 변신은 일시적인 것인 반면, 제주의 뱀 설화에서는 인간이 죽음을 매개로 해서 다시 뱀으로 환생한다는 관념이다. 넷째, 오키나와에서는 뱀신에 대한 의례가 퇴색하여 하나의 마쓰리(놀이)로 변용된 형태인데 반해, 제주에서 일부에서는 뱀신에 대한 의례로써 굳이 행해지고 있다.

A Comparative Consideration of Folktales about Snakes from Islands

- Focusing on Folktales from Okinawa and Jeju -

The southern islands of Okinawa, Japan, and Jeju-do, Korea's largest island, are both well-known as regions with abundant folklore. In particular, it is also what they have in common that the folkloric religions different from those on the mainland have been handed down. Therefore folktales about snakes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the folkloric religions in Okinawa and Jeju.

This paper reviewed the notions and spheres of consciousness that the islanders used to have about snakes at the time the folktales were first created. The folktales about snakes well represent their spheres of consciousness that raised a question on whether the snake should be worshiped as a god-like being or eradicated as an enemy. Both the regions exhibit inconsistent forms or appearances of the religions about snakes. The origin of the notion where a snake god was worshiped as an ancestor god through impersonation lies on the worship of ancestors. Notably, a snake god on both the islands had the same image as that of a water god, an ancestor god, or a village go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notions of snakes on the two island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marrying a snake is accepted as what is sacred and natural in the folktales of Okinawa, while the similar concept has not been expressed in those of Jeju.

Second, in the folktales of Okinawa, the purpose of the incarnation of a snake is snake to marry a human, while Jeju's folktales talk about the incarnation related to greed or sins of humans.

Third, the incarnation of a snake in the folktales of Okinawa is temporary, while a human in Jeju's folktales is reincarnated as a snake through a medium of death.

Fourth, the rite for a snake god in Okinawa has been discolored and transformed into Matsuri (a Japanese word for a festival or holiday). In some regions of Jeju, however, Gut (a Korean word for a rite for spirits) has been performed as a ritual for a snake god.